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그날 나는 여행 가방을 사야 한다고 마음먹은 잠이 들었다. 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않으므로 중고 물건이면 충분했다.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크기의 중고 여행 가방이 강남 어디쯤에 마쳤 있었고 게다가 거래 장소 바로 근처에 절친이 살고 있었다. 여행 가방을 사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딱 알맞을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메신저를 보내 다음날 만날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의 만남이 일상처럼로 성사되는 게 싫었다. 친구의 집으로 같이 가까운 음식점에서 만날지 의논하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할게. 주차장이 침수될 것 같다고, 차를 옮겨 놓으라고 하네.”

여러 날 뉴스를 장식했던 침수 차량의 시작이었다. 친구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버려진 차들이 동동 떠 있는 현상 사진들을 여러 장 보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중고 거래는 취소되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작으로 ‘총, 균, 쇠’가 가

위기의 여름

장 유명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문명의 붕괴’다. 이스타섬, 중미 마야 문명,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탁월한 해박함과 통찰력으로, 번성하던 문명이 어느 날 붕괴하고 폐허로만 남게 된 수많은 예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분별한 자원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그리고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편견 때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린란드에 한때 번성했던 사람들은 대기근 이후 집단 아사했다. 지력이 약한 땅에서 무리하게 축산업과 농업을 고집한 것도 여러서였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 들끓는 연어와 대구와 넙치를 그대로 놔두고 그들은 굶어죽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여러서였다’ 것인데, 아마도 그들은 우글거리는 물고기를 볼 때 우리가 ‘근중 식량 자원’에 대한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듯하다.

현대 인류는 마야인이나 그린란드인보다 나아졌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로 인류에게 경고를 남긴 이후 세상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라는 새로운 붐이 일어났다. 채굴은 컴퓨터가 단순 연산을 무한히 반복한 포상으로 코인을 얻고 그 과정에 화석연료 에너지와 고래처럼 소모되는 황당한 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낡은 제품들을 오래오래 사용하려 노력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몇 칸 쓸까 고민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류는 반성하고 고치기는커

녕 새로운 여러서움을 끝없이 창조하고 있다.

재난은 가난한 자부터 집어삼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재난은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 아프리카와 동태평양의 저소득 국가들이 겪던 기후 위기는 이 여름 산업혁명의 근원인 서유럽과 북미 대륙의 선진국까지 눈에 보이게 확장되었다.

그동안 늘 그래 왔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름의 성실한, 그러나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는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이 해결책을 찾아 주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내 실천으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방법을 찾아야 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중고 물품 거래는 총생산을 줄이므로 매우 쉽고 강력한 실천의 방법이 된다. 평소엔 가볼 일 없는 낯선 곳을 탐험하고, 타인의 취향을 엿보며, 짧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나는 아는 분 덕에서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옥실을 만났다. 비누 한 개만 달랑 놓인 옥실이었다. 흔한 바다와 헤어 제품이 하나도 없는 옥실 풍경은 몹시 낯설었다. 손 씻기와 세면, 머리 감기와 샤워까지 모두 같은 비누 하나로 해결한다고 했다. 어느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제품이어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 비누를 사 들고 왔다. 머리를 감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비누나 샴푸도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하려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위기를 가깝게 느낀 여름이었다.

종교칼럼

윤복희의 ‘여러분’을 들으며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혼자 있거나 의지할 대상이 없어 고독하고 쓸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외롭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대중가요중에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윤복희의 대표곡 ‘여러분’이라는 노래이다. 가수이자 작곡가이던 유희찬 목사가 여동생 윤복희 씨를 위해 작곡한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저 옛 가요로만 여겨졌지만 유명한 가수들이 재해석하여 부르면서 현재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재범·이선화·에일리·소하 등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하여 불렀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말 가사뿐만 아니라 불려져서 대중가요로만 알고 있지만 처음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어떤 장르의 노래였는지 영어 가사를 들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가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 나 또한 소향이라는 가수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방송에서 우리말 가사와 더불어 영어 가사로도 부르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소향이라는 가수는 원래 유명한 가스펠 가수이다. 목사의 아내로서 젊었을 때부터 활동을 하여 기독교인인 대부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가수이다. 비록 대중적인 TV프로그램에서 부르는 노래지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특하나 이 노래의 영어 가사로 부를 때 그녀의 모습은 원곡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다. 후담이지만 당시 그녀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힘든 노래였다”라고 고백하였다.

우리말 가사에서는 위로, 등불, 빛, 형제, 노래, 기쁨이 되는 이가 바로 나라는 일인칭을 쓰고 있지만, 영어 가사에서는 “He said”로 되어 있다. 결국 나는 그이며 그는 하나님 또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윤복희 씨가 직접 말했다. 앞에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서 주님이 그런 이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들이다. 특하나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가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셔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가요 ‘여러분’의 원제이다. 1978년 폐결핵 말기 판정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유희찬과 더불어

어 1979년 초 윤복희도 이혼의 아픔을 겪고 두문불출하던 때였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동생의 가슴앓이를 지켜보기 힘들었던 오빠 유희찬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자’는 취지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가사는 갖은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그분을 생각하며 가사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사회 계층과 남녀노소, 종교를 떠나서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많은 노래들이 이러한 감동을 선사한다. 유독 이 노래를 통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가 바로 주님이요,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외롭고 힘들어 지쳐 있는 것 같다. 참된 신앙은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웃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주기를 요청한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반려곤충, 반려물고기 등 많은 이들이 사람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 보려고 한다.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있다. 소향이 부른 ‘여러분’이란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렇다. “영원한 형제여, 친구여, 노래야! 난 너의 노래야!” 하고 힘차게 부르며 끝을 맺는다.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나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고

인문학으로 조화로운 생태 세상을 꿈꾸다



석연경 시인·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장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재 각각은 개별 존재이면서도 우주 전체를 품고 있다. 햇빛 바람 물 식물 동물 등 자연 현상계의 모든 것이 내 몸과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즉 몸은 자기 몸이면서도 타자의 몸이다. 사실 자아와 타자의 구분은 몸이라는 형식상 구분을 위한 구분일 뿐 자아는 곧 타자요 타자가 곧 자아인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반하며 문명을 발달시킬 때에도 인간의 마음에는 생태적 리듬이 흐른다. 즉 인간이 고도로 첨단화되고 왜곡된 인공 문화를 즐기더라도 깊은 마음속에는 조화롭고 생태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심리가 있다. 즉 실용적이거나 불협화음인 욕망을 추구하며 질주할 때도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생태 유전자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적인 필자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첫째는 좋은 글을 써서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세상 모든 존재가 하고 있는 말을 경청하

고 마음으로 느끼고 사랑한다. 갈등 상황도 보듬어 쓰 다듬고 다독거리며 동글고 부드럽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시를 쓴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일수록 필자는 시에서 나무 냄새와 꽃향기가 나기를 바란다. 산과 하늘과 들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을 미적으로 보여주어 세상의 거친 숨결이 온화하게 흐르기를 바란다. 필자의 시를 읽은 독자가 언어 예술을 체험하고 인문학적 교감을 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웃과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인문 정신 문화를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년 전 소박하게나마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라는 작은 소통 장소를 만들었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는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첫 문을 열었다. 10여 년 전 순천 문화의 거리에는 인문 문화가 없었고 문학인은 아무도 없었다. 용기 있게도 문화의 거리에 인문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문화의 거리에 입주했다.

그동안 연구소는 많은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매주 시집 한 권을 읽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집 읽기반을 열었다. 문예 창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예 창작반을 만들었다. 생태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을 나누고 싶어 생태시 읽기반도 만들었다. 인문학반을 만들어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였다. 고전문학반도 만들고 심리학반도 운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였

다. 연경초당에서 시낭송회와 시화전도 하였다.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눈물과 고통, 웃음과 꿈을 나누었다. 나는 인문학이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이런 측면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인문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은 더 강해졌고 연구소에서 꾸준히 인문학 모임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의 거리에 인문 문화가 활성화되었다. 필자는 현재 순천시청 옆으로 연구소를 옮겼다. 시청 주위에는 상가만 있고 인문 문화를 즐길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보람이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인문 문화 운동은 사명감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문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다. 경제적 궁핍 속에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인문 문화 운동을 하는 곳에 마중물 같은 지원이라도 된다면 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환경 문제를 제값한다. 질주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소유욕 등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생태적인 세상이 되도록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나누자. 모두 마음을 모아 생태적 세상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필자는 인문 문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社說

절망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 세심한 지원을

광주에서 보육 시설(고아원) 출신의 대학 세내기 두 명이 옛세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살의 A양은 그제 A4 용지 12장 분량의 유서에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숨진 A씨의 아버지와 남동생 모두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 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해 2월 만 18살이 되자 보육 시설을 나와 아버지가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로 옮겼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18살의 B군이 재학 중이던 대학 강의동 옥실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다. B군 역시 세 살 때부터 여러 보육 시설을 옮겨 다녀야 했다. 지난해부터 보육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늘어났지만 ‘자립’을 결정하고 올해 초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우리는 비랑 끝에 몰렸을 두 10대의 고

립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삶의 문턱에서 이들은 사회의 비정함을 맞닥뜨린 것이다. 한창 부모에게 사랑받고 청운의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두 사람에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청소년의 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만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는 현재의 복지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 절망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 전담 기관 등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주거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술 교육이나 심리 상담 등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의 관심과 배려다. 보육 시설을 벗어난 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연대의 손길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찬반 엇갈리는 트램 타당성 면밀히 검증해야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수소 트램(Tram-노면 전차)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좁고 막히는 도로에 트램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서 ‘철도 트램 정책팀’을 신설하고, 용역비 1억 원을 추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트램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트램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가 우선 추진하는 트램 사업 1단계는 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종합버스터미널~전방-일신방직-기아챔피언스필드를 잇는 2.6km 노선으로 사업비는 720억 원가량이다.

광주시는 트램에 장점이 많다고 진단한

다. 트램은 도시철도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버스의 장점인 접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므로 건설비·운영비가 도시철도나 경전철 대비 30~50% 수준이면 된다. 여기에 유럽이나 홍콩에서처럼 도심을 누비는 트램은 관광객 자원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성광장과 관천사거리의 하루 교통량 각각 14만대·12만대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혼잡 구간이다. 이런 도로에 트램을 설치하면 최소 2차로 이상을 차지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트램 건설비도 2020년 기준 km당 300억 원대에서 현재는 500억 원대로 갈수록 치솟는 추세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트램 대신 모노레일로 바꿨고, 부산시와 대전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광주시도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장단점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축구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중앙선 근처에 모여 무릎 꿇는 세리머니를 한다. 또한 선수와 심판 모두 유니폼에 ‘No room for racism’ (인종 차별을 위한 공간은 없다) 라는 패치를 붙이고 된다. 인종 차별을 근절하려는 캠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인종 차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려 하자 관중석에서 한 팬이 자신의 눈을 양 옆으로 찢는 동작을 했다. 동양인을 비하할 때 하는 행동이다. 첼시 구단은

인종 차별

해당 팬을 찾아내 경기장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토키니가 손흥민을 손으로 가격한 게 VAR(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판명돼 득점이 취소되자,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과도한 연기를 펼쳤으며 SNS에 ‘개고기나 먹어라’ ‘찢어진 눈의 황인종’ 등의 댓글 폭탄을 퍼부었다. 영국 경찰의 조사 뒤 인종 차별 글을 쓴 12명은 결국 사과 편지를 써야 했다. 손흥민은 또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

던 시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종 차별을 당했다’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자신이 골을 넣고 2대 0으로 승리한 독일전을 인생 최고 경기로 꼽기도 했다. 손흥민뿐만 아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올해 프리시즌에서 골을 넣었다가 상대 팀 팬으로부터 인종 차별 욕설을 들자 수사를 요청했고, 독일 분데스리가 이대성은 팀 동료가 ‘마늘 냄새 난다. 눈 감지 말고 뜨리’ 등의 말로 놀려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종 차별을 유쾌하게 견뎌낸 선수도 있다. 2014년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와 비야 레알 해당 팬을 찾아내 경기장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토키니가 손흥민을 손으로 가격한 게 VAR(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판명돼 득점이 취소되자,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과도한 연기를 펼쳤으며 SNS에 ‘개고기나 먹어라’ ‘찢어진 눈의 황인종’ 등의 댓글 폭탄을 퍼부었다. 영국 경찰의 조사 뒤 인종 차별 글을 쓴 12명은 결국 사과 편지를 써야 했다. 손흥민은 또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